동지가 금속노조다!

대전충북지부

43호

발행인 : 조민제
발행일 : 2014년 10월 20일(월요일)
발행처 :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교육선전부



국정감사 코앞에 선 대전고법

법을 어긴
대전고법,
국정감사에서는?

21일 대전고법 국정감사

지난달 15일 시작한 법원 앞 노숙투쟁도 벌써 한달을 훌쩍 넘겼다. 지난 8일 노조파괴 재정신청 수용 촉구 기자회견 후 대전고법은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해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그러나 10일이 지난 지금도 대답이 없다. 결국 국정감사의 코앞까지 왔다. 21일(화) 대전고법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린다. 법을 어기면서까지 재정신청 처리를 미루는 대전고법의 답변이 궁금하다.

재정신청 수용 0.96%, 노조파괴 사건도?

최근 5년간 고등법원에 접수된 재정신청 사건 7만 4,249건 중 719건 만이 수용됐다. 1%도 안되는 비율이다. 그만큼 법원이 국민의 권리구제와 인권보호에는 신경쓰지 않았다는 증거다. 노조파괴 사건을 대하는 대전고법의 행태도 똑같다. 노동자의 권리는 안중에도 없고, 사업주들을 법정에 세우지 않을 생각에만 골몰한다.

그러나 이번 재정신청은 특수하다. 이미 민사재판에서 불법성이 입증된 사건이다. 노조파괴 과정에서 이뤄진 직장폐쇄, 부당징계, 해고는 모두 불법이라고 판결이 났다. 법원의 판결이 난 것이다. 이런 사건마저도 재정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법원은 자신의 존엄성을 스스로 버리는 꼴이다.

대전고법은 국정감사 자리에서 얼토당토 않은 변명으로 국민적 웃음거리로 전락하기 전에 빨리 재정신청을 수용해야 할 것이다. 법원이 법조차 지키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무엇으로 설명할지 벌써부터 한심스럽다.

노숙 노동자들을 집으로!

법을 어기고 있는 대전고법 덕분에 죄없는 노동자들이 한달이 넘도록 법원 앞에서 팔자에 없는 노숙을 하고 있다. 그런데 정작 이 노동자들에게는 불법 집회라는 딱지를 붙이고 소환장을 남발하고 있다. 민원인이 민원처리 결과를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으면 행정기관을 처벌할 것이지 죄없는 민원인만 잡아들이는 것이다. 대전고법은 지금이라도 빨리 이 죄없는 노동자들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당한 판결을 내려야 할 것이다.

더 이상은 못 기다린다! 재정신청 수용하라!

108배는 끝나도 투쟁은 계속된다!





보쉬전장지회의 108배 출근투쟁이 100일째를 맞아 지역의 동지들과 더 많은 연대를 기약하며 일단락 되었다. 비록 사업장 내에서 소수의 인원이 남아 금속노조를 지키고 있지만 언제나 즐겁고 활기차게 투쟁할 것을 결의하며 108배 100일 문화제를 마쳤다.

17일(금) 보쉬전장 앞은 즐겁게 투쟁하는 동지들의 흥겨운 분위기로 가득했다. 보쉬전장지회 조합원들은 공동체놀이를 통해 장기간의 투쟁으로 지친 심신을 달랬고, 콘티넨탈지회 간부들은 파전을 부치며 응원했다. 지역의 연대단위들까지 합세해 투쟁문화제는 더욱 달아올랐다. 보쉬전장지회 간부들의 공연을 시작으로 청주시 노인전문병원 대외협력부장 동지의 노래, 유성영동지회 이정훈 지회장의 노래까지 문화제의 분위기는 가라앉을 줄 몰랐다. 마지막은 모두가 함께 하는 대동놀이로 마무리했다.

100일간의 108배는 민주노조 사수의 간절함을 보여주었다. 해고자 복직과 민주노조 사수의 염원을 진정성있게 보여주는 투쟁이었다. 그리고 이제 더 가열찬 투쟁을 기약하며 마쳤다. 지금까지 노조파괴 사업장 동지들이 보여준 투쟁정신은 칭찬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가야할 길이 아직도 많이 남았다. 먼 길을 떠날 때 가장 필요한 건 옆의 동료이다. 노조파괴 투쟁이 승리하는 날까지 언제나 함께 하자!

20일은 청주시 노인병원 '동조단식의 날'



청주시 노인전문병원 문제가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충북지부 청주시노인전문병원 분회 권옥자 분회장의 단식농성이 15일째를 맞이하고 있지만 청주시는 여전히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고 발뺌하고 있다.

20일은 이승훈 청주시장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불려간다. 국회가 노인병원 사태가 장기화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그러나 이승훈 시장은 청주시가 관리위탁을 준 노인병원의 운영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갈등은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노인병원은 청주시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공적인 병원이다. 비록 청주시가 관리위탁을 주었다고는 해도 병원의 운영을 관리하고 감독할 책임이 명백하다. 그렇지 않으면 시민의 세금을 민간병원에 퍼주는 것에 불과하다. 더군다나 청주시 노인병원은 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까지 판정을 받은 대표적인 노조탄압 사업장이다. 청주시가 손놓고 있는 것은 공공병원을 탐욕에 눈먼 민간병원에게 갖다바치는 것이다.

분회는 이승훈 시장의 국감 출석에 맞춰 사태 해결을 촉구하며 동조단식을 벌인다. 15일째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분회장의 투쟁을 엄호하기 위해 많은 동지들의 동조단식을 호소하고 있다. 예순을 바라보는 여성노동자가 삭발을 하고 15일째 곡기를 끊고 있다. 20일 하루는 우리도 함께 해보면 좋을 것 같다.

노동부 국정감사, 기업인 증인 5명 채택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4일 고용노동부 확인감사에 소환할 기업인 증인을 확정했다. 예년에 비해 증인수가 줄고 '급'도 낮아졌다.

환노위는 전체회의에서 노동부 확인감사에 부를 6명의 증인과 3명의 참고인 명단을 결정했다. 새누리당이 반대했던 기업인 증인 가운데 5명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여야가 이날 합의한 기업인 증인은 △윤문균 현대중공업 부사장(조선사업본부장) △윤갑한 현대·기아차그룹 사장(노무부문) △김영섭 LG유플러스 부사장(경영관리실장) △임경택 대우건설 수석부사장 △하석주 롯데건설 부사장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국감에 요구한 노동부문 증인은 27명으로, 기업인은 19명이었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단 한 명의 기업인 증인도 수용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하면서 파행을 겪었다. 올해 노동부 국감장에 등장할 노동부문 기업인 증인은 야당의 최초 요구에서 4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2012년 환노위 국감에는 30명, 지난해에는 26명의 기업인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요구 리스트에 있던 삼성그룹·KT·외환은행·이마트·HMC투자증권은 증인으로 결정되지 않아 쟁점이 다뤄지지 못할 예정이다.

증인으로 출석하는 사업장도 기업 대표에서 실무자로 급이 낮아졌다. 책임 있는 논의가 이뤄질지 미지수다. 대표적인 사업장이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으로 요구 리스트에 오른 현대차다. 야당은 정몽구 회장을 요구했지만 새누리당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종 결정된 인사는 윤갑한 사장이다.

이 주의 사진

※ 사진 제보받습니다_iswcool@naver.com


<10.18 대전충북지역 노동자 한마당>


<10.18 대전충북지역 노동자 한마당>


<10.18 대전충북지역 노동자 한마당>


<10.18 대전충북지역 노동자 한마당>